

새마을운동 시기 도농 간 경제력 격차 변화 분석: 1960~1970년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김완중**

Keywords

경제 발전 격차(Economic Development Gap), 도시·농촌(Urban and Rural Area), 새마을운동 (Saemaul Undong), 1970년대(1970s), 1960년대(1960s), 경상북도(Gyeongsangbuk-do)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development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in Gyeongsangbuk-do, one of Korean southeastern provinces. Saemaul Undong, a representat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of Korea, started to narrow the gap in the 1970s. This study evaluates the role of the program in narrowing the gap in the period. An economic development index based on several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per capita, industrialization, population growth rate, infrastructure, education, population aging, are calculated and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rogram on the economic development gap.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gap in the period. Although a few rural regions improved in the index, the main factor of the improvement was industrialization which was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However, ergodic distributions of the index changed to the direction of narrowing the gap.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the change was originated from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progra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narrowing the gap is rejected. This means that although there was an economic improvement in the absolute level, the rural relative economic improvement to the urban area was not achieved significantly in the period. These findings show that some scholars' argument on the program's positive and significant role in narrowing the gap may not be true.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related previous studies based on income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may overrate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gram on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iod.

차례

1. 서론
2.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촌 지역 경제력 변화
3. 경북지역의 시군별 경제력 변화와 새마을운동
4. 요약 및 결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8S1A5A2A01032847).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mail: wk7862@dau.ac.kr

1. 서론

새마을운동의 주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의했듯이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다. 잘 산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나,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었다. 한국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이전보다 크게 잘살게 되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있어서 발전은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평가는 반복적으로 실시된 언론사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¹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경험전수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전수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와 평가는 경제학이 아닌 행정학, 사회학, 여성학 등 비경제적 분야에 집중되었다. 정작 가장 강조되었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소수(이효계 1974; 오창환 1978; 황인정 외 1979; 황연수 2006; 정갑진 2009; Jwa 2018; 김완중 2020a)에 불과하다. 즉 1970년대 농촌지역은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잘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당시 국책연구소 연구원들과 일부 대학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 관련 연구는 Jwa(2018), 김완중(2017, 2020a)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Jwa(2018)는 1970년대 기간 더미변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김완중(2020a)은 시계열 분석을 통해 1970년대 농가소득이 여타 기간의 농가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관련 기존 연구들은 1970년대 농가당 소득 수준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1970년대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가 어떠했는가에 집중하였다. 비교 결과, 1970년대에 농가

1 관련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김완중(2020b) 참조.

소득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상회했다며, 그러한 지표변화를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소득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던 것과 달리, 소득 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적자원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괄하는 경제력 지표를 통해 1970년대 농촌지역의 경제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고, 경제력 지표 개선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이 소득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력 지수 개선과 그 지수의 도농 간 격차 축소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자료 제약상 1970년대 추진된 여러 가지 농촌개발 사업들의 성과를 개별 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농촌개발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당시 농촌개발 사업들이 농촌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나아가 19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KSP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새마을운동 관련)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며 주요 대상지역이었던 경북지역에 국한하도록 한다.²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1970년대 전후 경북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를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산출하고, 그 변화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경북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분포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커널합수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경제력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실증 분석을 통해 새마을운동 기간 경제력 지수에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상대적 개선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경북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중주도로써 21세기에도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북은 2007년에 ‘21C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새마을운동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과를 도청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박람회(2009),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2012)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청도), 새마을테마공원(구미),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포항)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역 브랜드화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사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내외 전파에도 노력하고 있다(경상북도 2017).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경북지역이 갖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징성 역시 본 연구가 경북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촌지역 경제력 변화

2.1. 경제력 측정 방법 및 분석 범위

본 절에서는 김영수 외(2006)와 심재현 외(2014) 등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말 사이에 농촌과 도시지역의 경제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청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남과 함께 농촌 새마을운동에 가장 많은 마을이 참여했던 경상북도³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경상북도 지역의 시(市)와 군(郡)의 경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도(道)내 각 지역의 경제력 지수를 계산한다. 이후 시 지역을 도시로, 군 지역을 농촌으로 간주하여 1970년대 전후 도농 간 경제력 변화를 분석한다.⁴

김영수 외(2006)는 지역 간 발전 격차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전국 시와 군부의 2000년대 초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지역경제력 지수(소득수준, 산업 발전, 혁신역량, 인력 기반, 사회간접자본 및 재정력으로 구성)와 주민활력지수(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 및 환경 부문으로 구성)를 계산하고 이들 지수를 종합한 지역발전지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시부와 군부의 해당 지수 비교를 통해 도농 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김영수 외(2006)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1970년대 경북지역의 도농 간 경제발전 격차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력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지역경제력 지수와 주민활력지수 중 지역경제력 지수에만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지역경제력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혁신역량 항목은 자료 제약상 고려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포함시킨 항목과 항목별 비율은 자료 확보 가능성 및 기존 연구(김영수 외 2006; 송미령 외 2011 등)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데 아래 <표 1>과 같다. 지역발전지수 산정 시 항목별 가중치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 어떤 연구자(신환철 외 2001; 홍준

3 1970년과 1979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전국 농가 수의 각각 17.5%와 17.2%, 농가인구의 17.4%와 16.7%를 차지, 전국 농가수와 농가인구에서 전남 다음으로 많았다(경상북도 1972 참조).

4 경북지역의 1972년(1979) 군 지역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76.1%(61.5%), 시 지역 인구 중 농가 비율은 7.4%(4.0%)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도시와 농가지역으로 구분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이동필 외(2004), 심재현 외(2014)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00년대 도농 간 지역 발전 격차를 비교하였다.

현 2001; 송미령 외 2011⁵; 이원섭 외 2002⁶)는 항목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김영수 외 2006 등)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력 지수의 구성 항목⁷은 김영수 외(2006)를 따르고 있으나, 김영수 외(2006)와 달리 자료 제약상 혁신역량 부문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 기초한 가중치 부여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환철 외(2001), 송미령 외(2011)와 같이 분류 내 항목별 가중치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역경제력 지수를 산출하였다(즉 대분류 4개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0.25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소분류 내 항목별 가중치도 동일하게 부여함).⁸ 항목별 평가지표 정의와 지표 계산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는 <표 2>와 같다. 분석 시점은 새마을운동이 추진되기 이전인 1966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1년, 새마을운동 중 소득 증대가 크게 강조되기 시작한 1975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마지막 해인 1979년이다.⁹ 1960년대 지역경제력 지수를 분석한 것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과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에 있어 지역경제력 지수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1960년대 중에서 1966년을 선택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1년과 종료 시점인 1979년 사이에 1975년을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1970년대 지역경제력 지수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함이다.

5 송미령 외(2011)는 4개 영역(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 공간, 주민 활력)에 대해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했으나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력 영역의 하부 3개 부문(소득 수준, 산업 기반, 지자체 재정)에 대해서는 개별 변수들의 산술평균(균일한 가중치)을 해당 영역의 지표로 사용했다(송미령 외 2011: 18-19).

6 이원섭·박양호(2002)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산출(5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지표별 가중치는 대표성, 신뢰성이 낮은 지표의 경우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사실상 항목별로 거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7 지역발전지수 특히 지역경제지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성 항목은 대체로 유사함.

8 한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누락된 혁신역량 부문을 제외한 상태에서 김영수 외(2006)의 가중치를 적용해보았는데, 그 경우에도 새마을운동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요청 시 김영수 외(2006)의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의 분석 결과 제시 가능).

9 새마을운동의 계획상 공식적인 기간은 1971~1981년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새마을운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후 운동의 성격 또한 크게 변질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Jwa(2018), 정갑진(2009) 등 많은 연구자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기간을 1970년대로 국한하고 있다.

표 1. 지역경제력 지수 구성 부문 및 가중치

부문	내용	지표	부호	가중치
소득 수준	주민소득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	1/4
산업 발전	산업 발전	-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	1/8
		-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	1/8
인력 기반	인구변화	- 최근 5년간 인구 성장률	+	1/12
	인구구조	- 총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 고령화지수 ¹⁾	+ -	1/24 1/24
SOC 및 재정	교육 정도	-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 이상 비율	+	1/12
	기반시설	- 도로율(=도로 면적/전체 면적)		1/16
		- 자동차 보유 비율 ²⁾	+	1/16
	재정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³⁾	+	1/8

주 1) 고령화지수=만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2) 자동차 보유 비율=자동차등록 수/총인구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수입

자료: 김영수 외(2006: 33). <표 3-1> 참조.

표 2. 지역경제력 지수 구성 자료 출처

지표	출처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지방재정연감('69, '72년), 경북통계연보(인구)
-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10인 이상 사업체)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경북통계연보(총인구, 농가인구)
-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총취업자=총사업체 종사자+15세 이상 농가인구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경북통계연보('67년)
-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	인구총조사
- 총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인구총조사
- 고령화지수	인구총조사
-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 이상 비율	인구총조사
- 도로율(=도로 면적/전체 면적)	경북통계연보
- 자동차 보유 비율	경북통계연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재정연감('69, '72년), 경북통계연보

자료: 저자 작성.

평가항목 중 소득 수준은 1970년 당시 행정구역별(시군별) 농가소득 자료가 부재하여 김영수 외(2006)와 심재현 외(2014)와 같이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1960년대와 1970년대 1인당 지방소득세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¹⁰ 또한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항목과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항목 계산에 있어 총사업체 종사자 수와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1971~1979년의 경우 사업체노

동실태조사보고서(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1966년의 경우 시군별 및 고용 규모별 사업체 수 자료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종사자 수 자료가 부재하여, 고용 규모별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구간별 종사자 평균값을 활용하여 추정된 총사업체 종사자 수를 이용했음을 밝힌다. 또한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계산 시, 총취업자 수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종사자 수와 농가경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농가인구(15세 이상) 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1966년 경우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보고서에 제조업의 사업체 자료가 부재하여,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경북통계연보(1967년)의 산업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1966년, 1971년, 1975년, 1979년 지역경제력 지수 산출 과정에서 인구 증가율의 경우 각각 1963¹¹~1966년, 1966~1971년, 1971~1975년, 1975~1979¹²년 기간의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표 1>에서 각 지표는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어 여러 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각 지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Min-Max 방법¹³을 통해서 각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지표 중 높은 고령화지수는 지역경제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지표의 최종적인 표준화 값은 1차적으로 원자료를 Min-Max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한 후 100에서 해당 값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2.2. 시군별 경제력 지수 추정 및 도농 간 격차

경북 각 지역의 1966년, 1971년, 1975년, 1979년 지역경제력 지수(이하 경제력 지수와 혼용)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경북지역의 시(도시)와 군 지역(농촌)부의 지역경제력 지수에는 1971년과 1979년 사이에 일정 정도 변화가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의 높은 경제력 지수와 농촌지역의 낮은 경제력 지수라는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구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는 지역 평균보다 매우 높게 유지되었고, 대부분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는 지역 평균에 크

10 1966년 시군별 지방세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1967년 시군일반회계 결산 자료(내무부 1969)로 대체하였음을 밝힌다.

11 1962~1966년이 아닌 1963~1966년 증가율을 이용한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역 구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1963년 1월 1일 안동군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되고, 강원도 울진군이 경북으로 편입되었다.

12 1979년 자료들은 1978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1978년 2월 15일 선산군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되고 칠곡군 인동면이 구미시에 편입되었다.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1979년 선산군 자료에 구미시가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13 지표 X(예를 들면 주민소득)에 있어 지역 i(예를 들면 대구시)의 Min-Max 값은 $[X_i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times 100$ 이 된다. 최댓값은 100이고 최솟값은 0이다.

게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1971년과 1979년에도 마찬가지였다(<그림 1> 참조). 1979년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평균보다 높은 경제력 지수를 보인 군부에는 달성군, 경산군, 선산군(구미시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의 경제력 지수는 1979년 기준으로 시부에 속하는 안동시보다 높았으며, 경산군과 선산군(구미시 포함)은 경주시와 김천시보다도 높았다. 특히 군부 중에서 달성군과 선산군(구미시 포함)은 1971~1979년 사이에 경제력 지수가 크게 높아졌다. 다만 경산군과 선산군의 경우 경제력 지수가 새마을운동 시작 시점인 1971년에도 지역 평균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이들 군은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여타 군들에 비해 발전 여건이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력 지수를 구성 항목별로 살펴볼 때 경제력 지수가 크게 개선된 이들 군의 특징은 산업발전 부문(특히 취업자 중 제조업 비율 항목)에 있어서 높은 발전을 보였다는 점이다(<표 4> 참조). 그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 총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15~64세/총인구)로 구성되는 인구 기반 항목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반면 이들 3개 지역보다 훨씬 많은 군들의 경제력 지수는 지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바, 이는 경북의 농촌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지역 내 불균형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의 경우 경제력 지수가 크게 낮았으며, 새마을운동 이전인 1966년 경제력 지수보다도 낮았다. 경제력 지수가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1966년에 비해서도 하락한 이들 지역의 특징은 경제력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 부문의 성과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지역의 해당 부문에 대한 발전 속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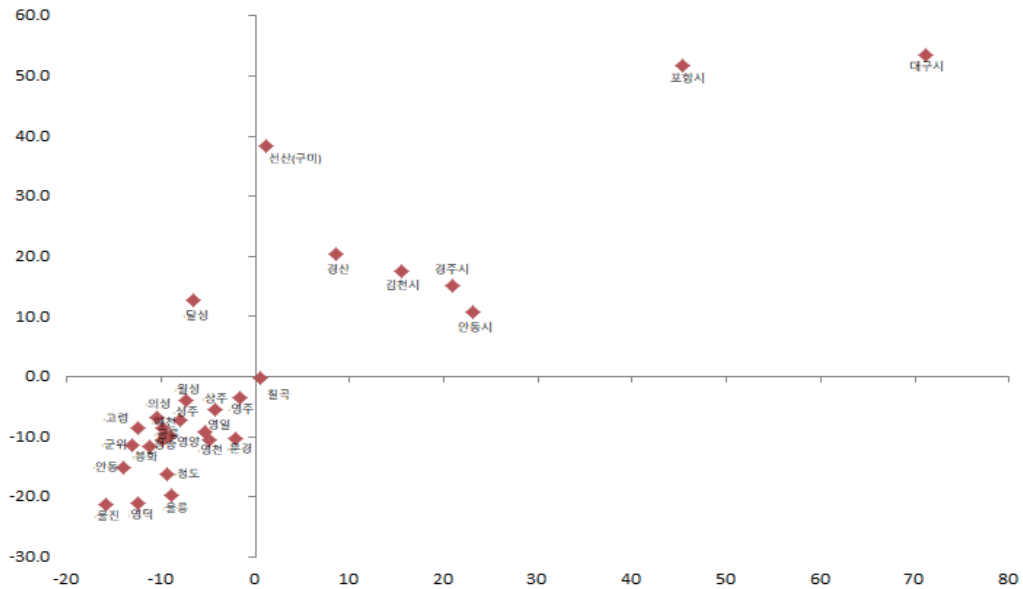
또한 군부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은 SOC 부문 중에서 도로율 항목의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내용에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해당 부문에 있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1970년대에 크게 발전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청도군의 경우 1979년 기준으로 경제력 지수가 울진군, 울릉군, 영덕군과 함께 지역 내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1970년대 경북지역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경제력 격차는 선산군, 경산군,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속되었다 할 수 있다. 즉 농촌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대부분 농촌지역의 경제력은 도시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제력 지수가

개선된 선산군(구미시 포함), 경산군,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에도 인구 대비 사업체 수 증가와 총취업자 중 제조업체 종사자 비율로 평가된 산업 발전이 개선의 주요인이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도시근로자가구당 소득에 비해 농가당 소득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더 높아졌다는 지표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존 평가는 농촌의 전체적인 지역경제력 발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농촌 경제력 발전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그림 1. 경북지역의 시군별 지역경제력 지수 변화(각 지역-평균)

(수평축: 1971년, 수직축: 1979년)



자료: 저자 작성.

표 3. 경북지역 시 및 군부의 지역경제력 지수

구분	지역	경제력 지수				지역-평균				도농 격차(대구=100)			
		1966	1971	1975	1979	1966	1971	1975	1979	1966	1971	1975	1979
시부 ¹⁾	대구시	59.6	95.2	87.0	82.9	34.1	71.1	61.5	53.5	100.0	100.0	100.0	100.0
	포항시	95.9	69.3	88.3	81.1	70.4	45.3	62.8	51.7	160.9	72.9	101.6	97.8
	경주시	36.5	45.0	40.5	44.6	10.9	21.0	15.0	15.2	61.2	47.3	46.5	53.7
	김천시	64.9	39.5	40.2	47.0	39.4	15.4	14.7	17.6	109.0	41.5	46.2	56.6
	안동시	53.9	47.2	54.5	40.2	28.4	23.2	29.0	10.8	90.4	49.6	62.6	48.5
군부	달성	17.9	17.5	21.9	42.1	-7.6	-6.5	-3.6	12.7	30.1	18.4	25.2	50.8
	군위	18.6	10.9	11.5	18.0	-7.0	-13.1	-14.0	-11.4	31.2	11.5	13.2	21.8
	의성	19.6	13.5	16.8	22.6	-6.0	-10.5	-8.7	-6.8	32.8	14.2	19.4	27.2
	안동	9.7	10.0	12.7	14.3	-15.9	-14.0	-12.8	-15.1	16.2	10.5	14.6	17.2
	청송	14.1	14.2	13.3	18.9	-11.4	-9.8	-12.2	-10.5	23.7	14.9	15.3	22.8
	양양	13.4	15.0	13.6	19.6	-12.1	-9.0	-11.9	-9.8	22.5	15.8	15.6	23.6
	영덕	19.5	11.5	8.2	8.4	-6.0	-12.5	-17.3	-21.0	32.8	12.1	9.4	10.1
	영일	16.7	18.6	13.2	20.2	-8.9	-5.4	-12.3	-9.2	27.9	19.5	15.2	24.4
	월성	16.0	16.6	15.4	25.6	-9.5	-7.4	-10.1	-3.8	26.9	17.4	17.7	30.8
	영천	18.1	19.1	15.3	18.9	-7.4	-4.9	-10.2	-10.5	30.4	20.1	17.6	22.8
	경산	19.1	32.5	36.3	49.9	-6.4	8.5	10.8	20.5	32.1	34.2	41.7	60.1
	청도	18.4	14.6	11.5	13.2	-7.1	-9.4	-14.0	-16.2	30.9	15.3	13.2	15.9
	고령	25.3	11.6	14.7	20.9	-0.2	-12.4	-10.8	-8.5	42.5	12.2	16.9	25.2
	성주	23.4	16.1	17.1	22.1	-2.1	-8.0	-8.4	-7.3	39.2	16.9	19.7	26.6
	칠곡	20.8	24.6	28.9	29.1	-4.8	0.5	3.4	-0.3	34.8	25.8	33.2	35.1
	금릉	19.2	14.5	16.7	19.9	-6.4	-9.5	-8.8	-9.5	32.1	15.2	19.2	23.9
	선산 ²⁾	19.2	25.2	39.8	67.7	-6.3	1.1	14.3	38.3	32.2	26.4	45.8	81.6
	상주	15.1	19.8	22.2	24.0	-10.5	-4.2	-3.3	-5.4	25.3	20.8	25.6	28.9
	문경	18.8	22.0	23.4	19.1	-6.7	-2.1	-2.2	-10.3	31.6	23.1	26.9	23.1
	예천	23.7	14.2	17.3	20.9	-1.9	-9.8	-8.2	-8.5	39.7	15.0	19.9	25.1
	영주	17.6	22.4	28.5	25.9	-7.9	-1.6	3.0	-3.5	29.5	23.5	32.8	31.3
	봉화	19.7	12.8	12.6	17.8	-5.8	-11.2	-12.9	-11.6	33.1	13.5	14.5	21.5
	울진	13.9	8.1	4.5	8.1	-11.7	-15.9	-21.0	-21.3	23.3	8.5	5.2	9.8
	을릉	11.9	15.0	13.9	9.8	-13.7	-9.0	-11.6	-19.6	19.9	15.8	16.0	11.8

주 1) 1979년 기준.

2) 구미시는 78년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통합해 시로 승격했으나 자료 일관성을 위해 선산군에 구미시를 포함시킴.

자료: 저자 작성.

표 4. 경북지역 시부 및 군부별 경제력의 항목별 지수

구분	1971년										1979년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주민 소득	산업 발전 ¹⁾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주민 소득	산업 발전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시/군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 (66~71)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²⁾	교육 정도 ³⁾	도로율 ⁴⁾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재정력 지수 ⁵⁾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 (70~80)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교육 정도	도로율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재정력 지수
대구시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89.2	100.0	85.1	24.7	100.0	68.5	91.4	90.3	93.7	100.0	99.5	100.0
포항시	78.4	94.3	18.2	88.4	84.9	11.2	82.2	76.9	100.0	51.0	100.0	100.0	40.8	100.0	97.0	100.0	100.0	18.1	100.0	49.7
경주시	68.9	40.0	5.4	49.9	51.7	59.9	53.6	11.1	50.4	39.7	73.5	13.7	13.5	53.6	70.4	52.0	65.5	9.8	72.6	21.1
김천시	46.4	35.2	9.3	53.8	56.6	22.4	66.8	28.6	71.0	21.8	49.2	13.2	31.7	50.5	75.1	72.5	65.1	24.8	84.6	51.3
안동시	51.0	54.8	18.8	81.6	52.6	5.6	80.6	18.1	69.8	30.3	38.7	8.8	20.1	50.5	62.7	77.6	69.2	31.3	62.4	42.1
달성	20.2	23.4	3.0	25.5	27.6	85.2	12.4	2.0	6.3	6.1	59.5	32.0	43.9	57.0	77.9	35.0	30.0	3.7	36.2	26.8
군위	17.0	1.9	0.0	0.2	8.0	87.2	10.1	3.7	4.6	8.6	49.3	0.0	0.0	22.2	11.7	2.4	9.7	1.5	15.9	11.0
의성	20.4	1.6	0.0	12.9	5.2	69.8	13.0	3.4	5.3	19.2	50.7	0.8	1.0	24.1	21.9	14.5	14.8	2.6	23.7	26.0
안동	18.5	0.0	0.0	8.7	1.5	79.9	0.0	0.0	1.6	9.1	36.5	0.5	0.2	21.2	5.4	16.2	0.0	0.5	5.8	15.9
청송	28.8	3.6	0.4	18.3	16.2	46.7	1.9	1.2	5.6	14.3	45.7	0.8	0.4	19.4	8.0	45.0	4.7	1.8	13.4	17.1
양양	28.8	6.0	0.5	27.6	15.8	44.0	1.7	0.0	6.0	13.7	46.7	0.8	0.3	20.6	0.0	61.8	2.2	1.6	12.7	19.2
영덕	8.4	15.0	1.7	20.1	29.2	63.1	11.5	3.2	10.4	0.3	6.8	1.9	1.8	26.1	13.6	30.3	10.3	1.9	19.8	0.0
영일	12.6	34.6	2.1	20.2	33.8	87.7	11.8	3.4	4.7	21.0	23.2	3.3	5.7	45.8	44.2	34.4	29.3	2.5	16.8	20.6
월성	27.0	10.1	0.4	8.3	22.4	100.0	6.5	1.7	2.5	15.3	41.8	13.3	14.4	37.0	39.9	13.0	20.1	1.8	16.6	28.2
영천	29.2	4.1	0.7	31.2	28.7	48.9	15.5	3.4	8.8	26.6	28.9	2.7	2.6	31.5	30.9	47.0	14.4	2.6	22.3	19.4

구분	1971년										1979년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주민 소득	산업 발전 ¹⁾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주민 소득	산업 발전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시/군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 (66~71)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²⁾	교육 정도 ³⁾	도로율 ⁴⁾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재정력 지수 ⁵⁾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 (75~79)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교육 정도	도로율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재정력 지수
경산	49.9	29.1	3.8	36.3	48.1	58.5	33.1	3.9	8.2	39.7	63.6	36.1	47.4	48.7	79.7	48.1	43.2	2.6	46.8	59.6
청도	23.1	6.0	0.7	8.5	15.2	93.1	9.6	3.4	10.6	8.7	25.9	0.8	0.8	26.9	32.7	4.8	11.4	1.2	13.1	6.9
고령	20.9	0.8	0.0	7.9	9.8	81.5	5.1	6.3	7.1	4.3	56.9	4.6	0.2	18.9	23.1	9.7	5.1	2.7	16.2	12.1
성주	28.7	1.5	0.0	5.2	17.5	90.7	11.2	6.0	9.6	14.8	56.8	1.5	0.6	19.4	28.7	0.0	9.2	4.2	22.4	18.9
칠곡	39.2	19.3	1.3	25.5	31.1	72.2	24.3	5.9	10.9	21.3	34.6	11.4	18.5	36.3	60.6	40.4	32.5	3.9	33.5	35.3
금릉	28.7	2.2	0.3	0.0	10.1	96.3	4.7	4.6	1.7	14.2	51.4	1.1	1.1	26.2	26.2	0.4	6.3	3.6	6.4	18.3
선산	36.9	31.4	2.3	14.3	14.8	82.8	18.4	4.9	7.1	33.4	98.0	58.2	76.2	98.2	100.0	40.8	58.2	3.2	48.0	34.4
상주	32.0	8.8	0.9	16.2	1.7	63.5	11.0	2.2	10.4	38.4	50.6	2.4	1.5	31.4	29.6	23.2	15.2	1.9	18.6	27.8
문경	18.6	54.5	2.2	29.0	12.9	45.7	11.6	4.7	24.2	20.6	28.6	10.9	2.4	30.9	22.2	56.0	18.8	1.5	24.6	10.3
예천	22.8	11.3	1.5	6.7	0.0	78.3	7.2	6.0	6.5	13.8	45.4	1.9	1.3	28.2	13.2	15.2	13.0	2.9	15.4	26.6
영주	25.6	23.9	4.2	41.8	18.8	47.8	24.3	1.7	15.4	24.9	33.7	5.4	6.6	40.7	29.9	50.4	31.6	2.6	30.2	36.7
봉화	11.8	22.5	1.6	23.7	15.4	53.7	6.9	3.2	8.1	5.7	31.0	5.4	4.2	27.3	6.4	54.1	8.0	0.5	10.7	21.4
울진	0.0	10.0	1.1	18.5	15.8	64.7	11.2	0.7	9.4	1.8	1.3	4.6	2.3	30.7	7.2	40.2	11.4	0.0	14.4	4.6
을릉	8.4	20.4	1.3	51.1	51.1	25.7	24.9	11.0	0.0	0.0	0.0	5.1	0.4	0.0	54.6	73.8	28.5	6.3	0.0	7.7

주 1) '71년(79년)은 10인(5인) 이상 사업체.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3) 교육 정도(1970년 10월, 1980년 10월 기준)=고졸 이상 인구/20세 이상 인구

4) 도로율=km²당 m

5) 재정력지수=(소득세+세외소득)/일반회계예산액

자료: 저자 작성.

3. 경북지역의 시군별 경제력 변화와 새마을운동

3.1.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용과 지역경제력 관계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¹⁴, 경제력 지수 평가 항목 중 농촌 새마을 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로는 주민 소득, 산업발전 항목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 그리고 기반시설 항목 중 도로율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농촌 새마을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 및 농업 외 소득 증대 사업이 추진되고, 새마을공장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확대되었으며, 생산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교통시설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중 1974~1977년에 전국적으로 1인당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보다 높아졌으나, 김완중(2017)에 따르면 당시 농가소득 증가는 농촌 새마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고미가정책 및 수매 확대, 그리고 급여소득, 이전소득 증대 등)에 주로 기인했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1970년대 지역별 농가소득 자료 부재로 직접적인 분석이 어려우나, 경북 농촌지역의 소득 증가 역시 새마을사업과 관계없는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인당 지방세율 소득의 대리변수로 할 때 1971년과 1979년 사이에 경북지역 대부분 농촌(군부)지역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농촌 새마을사업을 그 주요인으로 연계시키기는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북지역 중 일부 군부에 있어 경제력 지수가 산업발전 항목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를 새마을공장사업의 효과라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81년 말 기준으로 가동 중인 새마을공장 수는 전국적으로도 503개에 불과했으며 이 중 경북지역 소재 기업 수는 78개(지정공장 수 99개)였다.¹⁵ 한편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1981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당시 경북지역 소재 사업체 수는 총 16만 4,482개에 달했으며, 군부에만 6만 3,751개가 소재했다. 이를 고려할 때 새마을공장에 의해 창출된 농가소득과 일자리 수가 농촌지역 농가소득과 사업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율의 경우 양양, 달성, 안동, 청송, 영주 등 일부 군부 지역에서 1971~1979년 기간에 50%

14 새마을운동의 주요 내용은 김완중(2020b)의 <부표 5>를 참조할 수 있다.

15 한국개발연구원(1982)의 『새마을공장관계자료』 참고.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군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군부지역의 도로율은 1971~1979년 기간 동안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부표 1> 참조). 즉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경제력 지수 측정에 있어서 도로율은 모든 농촌지역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3.2. 도농 간 경제력 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

3.2.1. 경제력 지수의 지역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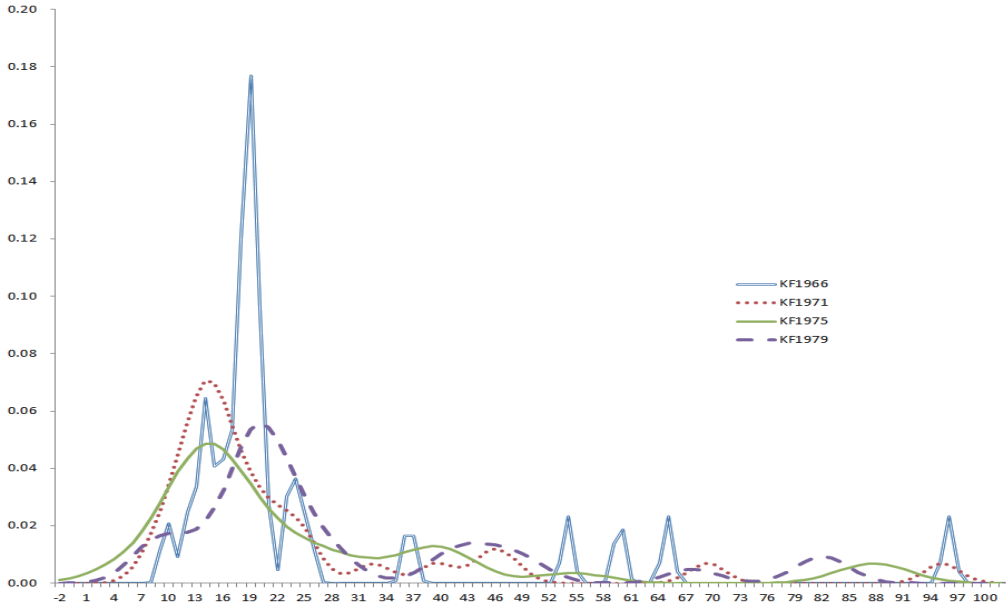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경북지역에 있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역경제력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 살펴보고, 지역경제력 분포의 장기균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력 지수의 ergodic(분포의 무조건부 장기균형) 분석을 통해 각 시점에서의 경제력 지수의 장기적인 변화를 평가한다.

먼저 경북지역 경제력 지수의 분포가 시점별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히스토그램을 평활화한(smoothing) 것이라 할 수 있는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를 통해 경북지역의 경제력 지수 분포를 추정한 것이다.¹⁶ 경제력 지수의 분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전 기간에 있어 모두 좌측으로 크게 편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66년과 비교했을 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해인 1971년과 새마을운동 사업이 크게 확대된 시점인 1975년에 있어서 경제력지수는 새마을운동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좌(左)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마지막 해인 1979년에 있어서 경제력지수 분포 역시 1966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양극단에 속하는 지역의 수가 축소되고 중간 정도의 지수 값을 가진 지역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제력 지수의 분포가 점진적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분포의 장기균형이라 할 수 있는 ergodic 분포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은 경제력 지수 분포가 특정 두 시점(예를 들면 1966년과 1971년)과 같은 패턴으로 변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지수가 어떤 분포에 수렴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시점에 관계없이 경북지역의 지역별 경제력 지수는 장기적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각 시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렴되는 위치는 달랐다. 즉 1966~1971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 지수의

16 각 지역의 경제력 지수가 여러 커널함수 중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력지수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림 2. 경북지역 경제력 지수 분포: Univariate Kernel Density Est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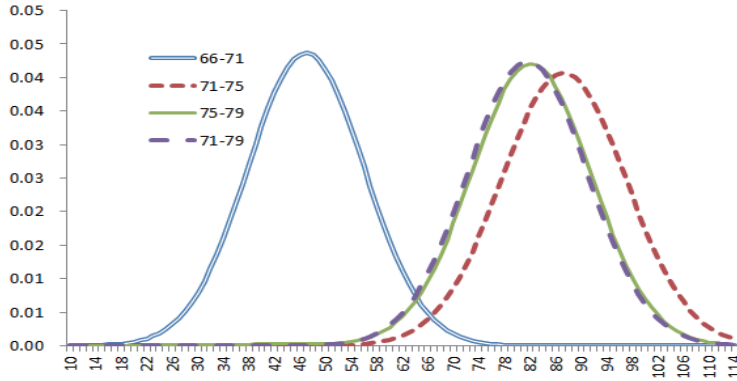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장기균형 분포보다는 1971~1975년, 그리고 1975~1979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 지수의 장기균형이 보다 우측에 위치해 있다. 이는 그 요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전기(1966~1971년)보다 후기(1971~1975년, 1975~1979년)에 있어서 경제력 지수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을 때 후기에 속하는 1975~1979년에 있어 경제력 지수의 장기 분포가 전기에 속하는 1971~1975년에 비해 좌측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전체적인 경제력 지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전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더 가속화되었다면, 경제력 지수의 장기 분포 역시 전기보다는 후기에 있어 더 개선된 상태로 수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인적 및 물적 규모를 볼 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전기보다는 후기에 더 집중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지수의 장기적 분포는 전기보다는 후기에 있어 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력 지수와 그 분포는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여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새마을운동의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경북지역 경제력 지수의 장기 분포: 커널함수에 기초한 Ergodic Distribution



자료: 저자 작성.

3.2.2. 경제력 지수 변화의 도농 간 차이 및 새마을운동과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제력 지수 변화는 전국적인 공업화 과정에 기인했을 수도 있지만, 새마을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절에서는 새마을운동과 관련은 없지만 지역경제력 지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를 들면 전국적인 공업화 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경제력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와 새마을운동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에서는 앞장에서 측정한 각 지역의 경제력 지수를 이용하여 도농 간 상대적 경제력 변화와 새마을운동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두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업 건수와 사업 규모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다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주로 정신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 기간인 1970년대에 경제력 지수에 있어 도농 간 격차는 축소되었을 수 있다. 각 지역의 경제력지수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지역(도시)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수치라는 점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의 상대적 경제력 지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1970년대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는 여타 기간 및 여타지역(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었을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회귀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도록 한다. 분석은 1966년, 1971년, 1975년, 1979년 경북지역 시군 29개 지역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패널 분석은 하우스만 검증

(Hausman Test)을 토대로 임의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모형은 아래 식(1)과 같다. 식(1)에서 좌측은 종속변수로 각 지역의 경제력 지수(EL)이며, 우측은 차례로 상수항, 공업화지수(IDI), 지역더미(DMR)(도시지역=0, 농촌지역=1), 시간더미(DMT)(1971~1979년=1, 여타기간=0)이며, 마지막 항은 오차항을 나타낸다.¹⁷ 식(2)는 농촌지역에 있어 새마을운동 기간과 여타기간 경제력 지수의 조건부 평균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식(3)은 도시지역에 있어 새마을운동 기간과 여타기간 경제력 지수의 조건부 평균 차이를 보여준다. 식(2)에서 식(3)을 빼고 남은 값인 β_4 는 새마을운동 기간과 여타기간 사이 경제력 지수의 변화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다면, 두 지역의 경제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주요 변수(본 연구에서는 공업화 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 폭이 도시지역의 개선 폭보다 컸을 것이고, 해당 계수 값(β_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1) \ln EL_{jt} = \alpha + \beta_1 \ln(IDI_t) + \beta_2 DMR + \beta_3 DMT + \beta_4 (DMR * DMT) + \epsilon_{jt}$$

$$\epsilon_{jt} = \lambda_j + u_{jt}$$

$$(2) E[\ln(EL_{jt}) \mid IDI_t, DMR = 1, DMT = 1] - E[\ln(EL_{jt}) \mid DMR = 1, DMT = 0] = \beta_3 + \beta_4$$

$$(3) E[\ln(EL_{jt}) \mid IDI_t, DMR = 0, DMT = 1] - E[\ln(EL_{jt}) \mid DMR = 0, DMT = 0] = \beta_3$$

식(1)에 기초한 실증 분석에 앞서 두 지역의 경제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통요인(전국적인 공업화 지수)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두 기간에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식(1)에서 공업화 지수 변수(IDI)가 없는 상태에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지역더미와 시간더미 변수 교차항의 계수인 β_4 의 부호는 예상과 같이 양(+)을 보였으나,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이는 두 기간 양 지역의 경제력 지수 변화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브러쉬-페이건 검정(Breusch-Pagan Test)과 혼다 검정(Honda Test) 결과,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는 횡단면 자료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개별효과 존재 여부 검증

	Cross-section	Time	Both
Breusch-Pagan Test (p 값)	115.36 (0.00)	0.64 (-0.43)	115.99 (0.00)
Honda Test (p 값)	10.74 (0.00)	-0.80 (-0.79)	7.03 (0.00)
King-Wu Test (p 값)	10.74 (0.00)	-0.80 (-0.79)	2.58 (0.00)
Standardized Honda Test (p 값)	10.88 (0.00)	-0.13 (-0.55)	4.14 (0.00)

주: 적용된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상수항과 공업화지수(GDP에서 제조업 비율)임.

자료: 저자 작성.

표 6. 새마을운동의 경제력 지수에 대한 효과 분석: 무조건부 평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ln(EI)	ln(EI)	ln(EI)	ln(EI)
C	4.05	3.07	4.06	4.08
t값	27.87	27.45	26.84	23.02
p값	0.00	0.00	0.00	0.00
DMR(균부=1)	-1.19		-1.19	-1.22
t값	-7.47		-7.47	-6.25
p값	0.00		0.00	0.00
DMT(71~79=1)		-0.01	-0.01	-0.04
t값		-0.23	-0.23	-0.29
p값		0.82	0.82	0.77
DMR*DMT				0.03
t값				0.22
p값				0.83
R ²	0.33	0.00	0.33	0.33

주: random effect에 기반한 FGLS(Cross-section random effects)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두 지역의 경제력 지수는 새마을운동과 관계가 없는 전국적인 공업화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7>은 회귀 분석의 설명변수에 두 지역의 경제력 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인 공업화 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상태에서 각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보여 준다.¹⁸ 즉 공업화 지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두 지역의 경제력 지수 차이 완화 여부는 β_4 의 부호와 통계

18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경제력 지수 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 지역의 경제력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별 자료를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변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새마을운동과 관계가 없는 지역별 공업화지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각 지역의 공업화지수(본 연구의 경우 산업발전 지수, <부표 1> 참조)가 종속변수인 지역경제력 지수 계산 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종속변수 구성 항목을 다시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표 7. 새마을운동의 경제력 지수에 대한 효과 분석: 조건부 평균

모형 1		모형 2		모형 3	
ln(EI)		ln(EI)		ln(EI)	
C	3.43	C	3.35	C	0.63
t값	12.70	t값	11.81	t값	0.60
p값	0.00	p값	0.00	p값	0.55
ln(IDI_1)	0.35	ln(IDI_2)	0.16	ln(IDI_3)	0.33
t값	3.16	t값	3.28	t값	3.38
p값	0.00	p값	0.00	p값	0.00
DMR(군부=1)	-1.22	DMG(군부=1)	-1.22	DMR(군부=1)	-1.22
t값	-6.35	t값	-6.36	t값	-6.37
p값	0.00	p값	0.00	p값	0.00
DMT(71~79=1)	-0.27	DMT(71~79=1)	-0.29	DMT(71~79=1)	-0.29
t값	-1.81	t값	-1.93	t값	-1.96
p값	0.07	p값	0.06	p값	0.05
DMR*DMT	0.03	DMR*DMT	0.03	DMR*DMT	0.03
t값	0.23	t값	0.23	t값	0.23
p값	0.82	p값	0.82	p값	0.82
R ²	0.37	R ²	0.38	R ²	0.38

- 주 1) IDI_1: 전국 GDP에서 제조업 비율.
- 2) IDI_2: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실질 GDP에서 제조업 부문을 지수화(1966=100).
- 3) IDI_3: 전국 1인당 실질 GDP.
- 4) EGLS(Cross-section random effects)로 추정함.

자료: 저자 작성.

적 유의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에서 β_4 의 부호는 <표 6>과 동일하게 양(+)의 값을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업화지수(IDI) 측정 방법(<표 7>에서 IDI_1, IDI_2, IDI_3)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과 여타 기간 사이에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 정도는 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 정도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이 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은 도시지역 등 전국적인 경제력 지수 개선에 동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력 지수가 개선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 특히 새마을운동이 집중된 1970년대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 정도가 여타 지역 및 여타 기간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그러한 기대에 부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반영하여 지역의 경제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나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변수로 전국적인 공업화지수를 사용했다.

합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농촌지역 경제력 개선이 도시 경제력 지수 개선보다 크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중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control group)과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지역(treatment group)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모든 농촌지역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집중된 지역(농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 비교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도농 간 경제력 격차 완화 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주요 추진 동기가 공업화 과정에서 확대된 도농 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 지표로서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새마을운동 이전에 농가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았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오히려 역전되었음)가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당시 단순 명목소득 비교가 아닌 소득 수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력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 여부와 그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역할 달성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물론 일부 시부(경주, 안동 등)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농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상기 논리 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5개 시부 중 도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구와 포항을 제외한 3개 시부(경주시, 안동시, 김천시)를 모두 농촌지역으로 재분류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본 연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 경우,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도농 간 경제력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19 요청 시 3개 시부를 농촌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주요 배경은 도시와 제조업 중심의 당시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도농 간 경제력 격차 심화이다.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농 간 경제력 격차는 완화되었을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격차)가 축소되었고 나아가 농가가 도시근로자보다 더 잘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당 소득은 농가교역조건 등 새마을운동과 무관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농 간 소득 격차에만 집중한 기존 연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제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집중된 1970년대에 있어 농촌의 경제력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즉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도시와 농촌 간 경제력 격차가 새마을운동 이전 기간에 비해 더 축소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제력 격차는 새마을운동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선산군, 경산군 등 일부 농촌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력 지수가 개선되었으나, 이들 지역은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평균 이상의 경제력 지수를 가진 지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경제력 지수 개선은 제조업 발전과 관련이 깊은 항목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운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개선을 새마을운동의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새마을운동에서 강조되었던 도로 확장 등 인프라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수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북지역의 지역별 경제력 지수의 분포 역시 새마을운동 기간 전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간에 속하는 지역 수가 증가하며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포의 장기 균형이라 할 수 있는 Ergodic 분포는 1966년과 1970년대를 비교할 때 새마을운동 이후 크게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전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좌측으로 이동한바, 1970년대 발전적 변화가 새마을운동에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한편 경제력 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농촌지역의 경제력 지수와 도시지역의 경제력 지수 격차

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완화되었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절대적인 경제력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도시지역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의 경제력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와 농촌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있어 새마을운동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1970년대 당시 도농 간 가구당 소득 수준 비교를 토대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도시보다도 더 잘살게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으로 도농 간 격차가 해소되고 오히려 농촌이 더 잘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경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지역에 새마을운동 참여 농가가 일부 포함된 상태에서 도농 간 소득 격차 변화를 통해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지역의 경제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자료 제약상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개별 사업별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종합적인 경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이용하여 당시 농촌지역의 경제력 변화를 분석하고, 도농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부표 1. 경북지역 시 및 군부의 지역경제력 지수 구성 항목별 기초 자료

구분	1971년										1979년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주민 소득	산업 발전 ¹⁾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주민 소득	산업 발전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시/군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 총인구	제조업 종사자/ 취업자	인구 성장률 (66~71)	(15~ 64세)/ 총인구	고령화 지수 ²⁾	교육 정도 ³⁾	도로율 ⁴⁾	자동차 등록수/ 총인구 ⁵⁾	재정력 지수 ⁶⁾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 총인구	제조업 종사자/ 취업자	인구 성장률 (70~80)	(15~ 64세)/ 총인구	고령화 지수	교육 정도	도로율	자동차 등록수/ 총인구	재정력 지수
대구시	1,045	71.9	86.3	34.0	70.9	8.5	28.3	3,419	1.04	57.9	8,609	106.9	61.2	20.0	74.7	12.8	42.4	4,388	2.04	76.2
포항시	849	67.8	15.7	28.3	69.3	9.6	24.3	2,665	1.17	34.6	9,799	430.4	25.0	45.0	75.4	10.6	44.4	966	2.05	47.4
경주시	762	28.8	4.6	9.7	65.6	14.4	17.8	513.5	0.59	29.2	7,675	59.6	8.3	8.2	72.0	21.3	33.1	616	1.50	31.0
김천시	557	25.4	8.0	11.5	66.2	10.7	20.8	1,085	0.83	20.6	5,736	57.8	19.4	5.7	72.6	16.7	33.0	1,244	1.74	48.2
안동시	599	39.4	16.3	25.1	65.7	9.1	23.9	742	0.82	24.7	4,894	38.7	12.3	5.7	71.0	15.6	34.3	1,516	1.29	43.0
달성	318	16.9	2.6	-2.2	63.0	16.9	8.6	217	0.07	13.1	6,554	138.2	26.9	10.9	73.0	25.1	21.5	362	0.76	34.3
군위	289	1.5	0.0	-14.5	60.8	17.1	8.0	272	0.05	14.3	5,744	1.0	0.0	-16.7	64.3	32.3	14.8	271	0.34	25.2
의성	320	1.2	0.0	-8.4	60.5	15.4	8.7	264	0.06	19.4	5,850	4.5	0.6	-15.2	65.6	29.6	16.5	319	0.50	33.8
안동	303	0.1	0.0	-10.4	60.1	16.4	5.8	151	0.02	14.6	4,715	3.1	0.1	-17.4	63.5	29.2	11.6	228	0.14	28.0
청송	397	2.7	0.3	-5.7	61.7	13.1	6.2	188	0.07	17.0	5,456	4.4	0.2	-18.9	63.8	22.8	13.2	286	0.29	28.7
양양	397	4.4	0.4	-1.2	61.7	12.8	6.1	151	0.07	16.7	5,537	4.6	0.2	-17.9	62.8	19.1	12.4	275	0.28	29.9
영덕	211	10.8	1.5	-4.8	63.2	14.7	8.4	256	0.12	10.4	2,339	9.0	1.1	-13.6	64.6	26.1	15.0	287	0.42	18.9
영일	249	24.9	1.8	-4.8	63.7	17.1	8.4	261	0.05	20.3	3,652	15.2	3.5	2.1	68.6	25.2	21.2	311	0.36	30.7
월성	380	7.3	0.4	-10.6	62.4	18.3	7.2	206	0.03	17.5	5,140	58.2	8.8	-4.9	68.0	30.0	18.2	286	0.36	35.1
영천	400	3.0	0.6	0.6	63.1	13.3	9.3	262	0.10	22.9	4,105	12.4	1.6	-9.3	66.8	22.4	16.4	316	0.47	30.0

(계속)

구분	1971년										1979년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소득		산업 발전		인력 기반			SOC/재정		
	주민 소득	산업 발전 ¹⁾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주민 소득	산업 발전	인구 변화	인구구조		교육 정도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시/군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66~71)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²⁾	교육 정도 ³⁾	도로율 ⁴⁾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⁵⁾	재정력 지수 ⁶⁾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체 종사자/총인구	제조업 종사자/취업자	인구 성장률(75~79)	(15~64세)/총인구	고령화 지수	교육 정도	도로율	자동차 등록수/총인구	재정력 지수
경산	589	20.9	3.3	3.0	65.2	14.3	13.2	278	0.10	29.1	6,888	156.1	29.0	4.3	73.2	22.2	25.8	318	0.97	53.0
청도	345	4.3	0.6	-10.5	61.6	17.7	7.9	262	0.12	14.4	3,870	4.3	0.5	-13.0	67.1	31.8	15.3	257	0.29	22.9
고령	324	0.7	0.0	-10.8	61.1	16.5	6.9	356	0.08	12.3	6,348	20.8	0.1	-19.3	65.8	30.7	13.3	320	0.35	25.8
성주	396	1.1	0.0	-12.1	61.9	17.4	8.3	346	0.11	17.3	6,342	7.3	0.4	-18.9	66.5	32.9	14.7	383	0.47	29.7
칠곡	492	13.9	1.2	-2.2	63.4	15.6	11.3	343	0.13	20.4	4,562	50.0	11.4	-5.5	70.7	23.9	22.3	370	0.70	39.1
금릉	396	1.6	0.3	-14.6	61.1	18.0	6.8	300	0.02	17.0	5,909	5.6	0.7	-13.5	66.2	32.8	13.7	361	0.15	29.4
선산	471	22.6	2.0	-7.7	61.6	16.7	9.9	311	0.08	26.1	9,640	250.8	46.7	43.5	75.8	23.8	30.7	342	1.00	38.6
상주	425	6.4	0.8	-6.8	60.2	14.8	8.2	224	0.12	28.5	5,845	11.4	0.9	-9.4	66.7	27.7	16.6	288	0.40	34.8
문경	304	39.2	1.9	-0.6	61.4	13.0	8.4	306	0.28	20.1	4,088	47.6	1.5	-9.8	65.7	20.4	17.8	270	0.52	24.8
예천	342	8.2	1.3	-11.4	60.0	16.2	7.4	347	0.08	16.8	5,431	9.3	0.8	-11.9	64.5	29.5	15.9	331	0.33	34.2
영주	368	17.2	3.6	5.7	62.0	13.2	11.2	206	0.18	22.1	4,490	24.3	4.1	-2.0	66.7	21.6	22.0	316	0.63	39.9
봉화	242	16.2	1.4	-3.1	61.7	13.8	7.3	255	0.09	12.9	4,278	24.2	2.6	-12.6	63.6	20.8	14.2	230	0.24	31.2
울진	134	7.3	0.9	-5.7	61.7	14.9	8.3	174	0.11	11.1	1,899	20.5	1.4	-10.0	63.7	23.9	15.4	209	0.31	21.5
울릉	211	14.8	1.1	10.2	65.6	11.1	11.4	510	0.00	10.2	1,795	23.1	0.2	-34.3	69.9	16.4	21.0	474	0.02	23.3

주 1) '71년('79년)은 10인(5인) 이상 사업체.

2)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3) 교육 정도(1970년 10월, 1980년 10월 기준)=고졸 이상 인구/20세 이상 인구

4) 도로율=km당 m

5) 1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6) 재정력지수=(소득세+세외소득)/일반회계예산액

자료: 저자 작성.

참고 문헌

- 경상북도. 1967, 1971, 1975, 1979. 『경북통계연보』.
- 경상북도. 2017. 『국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 영남대 산학협력단 용역보고서.
- 김영수, 변창욱. 2006. 『지역발전격차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 김완중. 2017. “한국 고도성장기 농촌지역 소득증가 요인: 1970년대 농가소득과 농촌새마을운동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http://doi.org/10.15820/khjss.2017.43.3.016>
- 김완중. 2020a. “농가소득 증가의 구조 변화 분석: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3권 제1호.
- 김완중. 2020b.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격에 관한 소고: 농정과 새마을운동 관계 -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 내무부. 1969, 1972. 『지방재정연감』.
- 노동청. 1966, 1971, 1975, 1979. 『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
-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윤병석. 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환철, 오영수, 신기현, 안완기. 200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
- 심재현, 성주인, 노승철,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2014. 『지역발전지수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창환. 1978.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모형 -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유발기구, 새마을운동.” 『지역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pp. 45-72.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이동필, 박시현, 김태연, 성주인, 심은정, 김창현, 김정홍.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효계. 1974. “새마을 운동과 소득증대 : 새마을 운동에 의한 소득효과와 분석.” 『지방행정』 제23권 제245호. pp. 38-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정갑진. 2009. 『1970년대 한국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KDI.
- 통계청. 1966, 1970, 1975, 1980.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한국개발연구원(KDI). 1982. 『새마을공장관계자료』. 단기정책자료('82~'07).
- 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통권 제33호.
- 황연수. 2006. “농촌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농업사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농업사학회.
- 황인정·민상기·심재웅·이성복. 1979. 『한국의 농촌개발 1970-79 -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구보고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Jwa, Sung-Hee. 2018. “Understanding Korea’s Saemaul Undong: Theory, Evidence, and Implication.”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1, no. 2.

원고 접수일: 2021년 1월 21일
원고 심사일: 2021년 2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1년 3월 17일